**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벙커\_대만 홍콩 염지원**

2020.07.08

[대만]

**빈과일보(2020/06/23)**

**勇鷹首飛 美中軍機現蹤 共軍轟6 殲10擾台恫嚇 美軍電偵機 B-52同日挺台**

這一天，美中台在台灣空域空中角力。首架國機國造勇鷹新式高教機昨在台中清泉崗機場執行首飛；首飛後不久，中共轟6、殲10戰機出現在台灣西南空域，進行22天來第8度擾台恫嚇行動，而美軍EP-3E電偵機也飛入台灣防空別識區的西南角，B-52轟炸機則在東部外海空域活動，美中台軍機同日現蹤，擾台和挺台兩大勢力集結台灣空域，相互較勁、監視。<https://tw.appledaily.com/headline/20200623/5Q3RGLZ5IQVKPD5JI3XJJNSJVI/>

6.22 대만 최초의 자체제작 고등훈련기 '융잉(勇鷹)'號가 초도비행을 실시하였다고 보도

 ㅇ 대만이 최초로 자체제작한 고등훈련기 '융잉(勇鷹)'호가 6.22 타이중(台中) 칭취안강(淸泉崗) 공항에서 이륙하여 약 12분간 비행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융잉호를 계기로 군용기 자국생산(國機國造)을 통한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대만 공군의 훈련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한 비행사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ㅇ 융잉호는 대만製 전투기인 '징궈(經國, IDF)'號를 개량한 것으로 대만의 방산기업 '한샹(漢翔, AIDC)'이 제작하였으며, 대만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 2종(AT-3 및 F-5)을 대체하여, 향후 F-16V 전투기 조종 훈련에 활용될 전망임.

 - 차이 총통의 적극적 지원으로 융잉號 66대의 생산을 위한 686억NTD(한화 2.74조원 상당)의 예산이 할당된 바 있으며, 마완쥔(馬萬鈞) 한샹 총경리는 "향후 공군과 수차례 테스트를 거친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시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

**한겨레(2020/07/05)**

**홍콩, 남중국해, 대만…‘홍콩보안법’ 이후 미-중 군사적 긴장 확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중국해 전역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벌이고,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다시 침범했다.

미 해군은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두 대의 항모를 남중국해에 파견해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항모 니미츠 및 로널드 레이건 호가 남중국해에 파견돼 합동훈련을 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미 해군이 확인한 것이다. 미 해군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두 대의 항모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작전과 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 두 대를 동시에 파견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2297.html#csidx9d67376e52831a69c1803b6921bc48f>

中華民國國防部 (2020/07/01)

針對媒體報導「美軍機P-8A跨過台海中線，進入南海空域」乙情，空軍司令部今（1）日鄭重表示，報導內容與事實不符。

空軍司令部強調，對於臺海周邊海、空域狀況，國軍運用聯合情監偵作為，均能充分掌握，並適切應處

<https://www.mnd.gov.tw/Publish.aspx?p=77164&title=%e5%9c%8b%e9%98%b2%e6%b6%88%e6%81%af&SelectStyle=%e5%8d%b3%e6%99%82%e6%96%b0%e8%81%9e%e6%be%84%e6%b8%85%e5%b0%88%e5%8d%80>

미 공군 사령부는 오늘 미군 항공기 P-8A가 대만 해협의 중심선을 넘어 남중국해의 영공에 진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응답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엄밀히 언급했다.

공군 사령부는 공동 지능 감시 및 정찰을 사용하여 대만 해협 주변의 해상 및 공역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BBC KOREA(2020/07/07)

**홍콩 보안법: 중국, '홍콩 시민에 비자주는 건 내정 간섭'... 영국에 경고**“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317020>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영국에 경고했다. 류샤오밍 주영국 대사는 영국이 3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시민권 취득 방법을 제안한 데 대해 "중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동망(東網) (2020/07/04)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국가안전유지법) 시행에 맞춰 인민해방군 지휘 하에 있는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이 파견, 상주시킬 계획.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현지에 진주한다.